

생사열반과 지옥천당 꿈속의 꿈일세

불교지도자 봉축법어

조계종 배암 종정



허망한 나 버리고 참나 깨닫자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내려 오셨으며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중생제도 마쳐셨다. 부처님의 동체대비는 무량무애(無量無碍)하여 항하사수의 중생들이 억만겁을 찬탄한다 하여도 다 설할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절대 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일체법(一切法)이 청정하여 청정이라는 이름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공대무변한 우주법계의 한량없는 유정 무정(有情無情) 부처님께 이(禮)와 사(禮)를 불공하라.

본래마음(本心)의 밝은 달(明月)이 일체(一切)를 밝게 비추니 이 사바세계가 곧 정토(淨土)요, 마군(魔群)과 제불(諸佛)이 본래 한 몸이로다.

선악사비와 이해득실은 거꾸위에 거꾸이요, 생사열반과 지옥천당은 꿈속의 꿈이로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바로 볼지어다.

회교리 시냇물 태평을 노래하니 푸른 솔 환 바위 명실명실 춤을 추네 아—아!

태고종 덕암 종정



서로의 허물용서 진정 화합 이루자

부처님께서 지혜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밝게 해주시고 자비광명으로는 어둠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니다.

권력에 의해서, 명예나 재물에 의해서, 또는 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이 차별대우를 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나 풍토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우리들의 생활 현실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불행한 현상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의하여 소외되고 실직을 하고 설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아니 많습니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과 자유와 삶의 기쁨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증오심과 시기를 버리고 그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위하는 이타정신과 화합정신을 발휘하여 그 동안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을 과감히 불식하며 아집과 아상 아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차별하여 경멸하여 분쟁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바로 이 아집과 아상 아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태종 도용 종정



대립과 갈등 풀고 자비사상 실천

부처님은 우주·인생의 실상을 열어 보이시고 인간의 존엄성 주체성을 천명하시고 확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밝고 청정한 불성을 계발하여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고 밝은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죄악과 고뇌와 불안과 모순과 불평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광명사회, 정복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첫째 지혜로운 인간, 불성을 자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본래 지닌 존엄성 곧 불성을 자각한 슬기로운 인간의 주체성·존엄성을 확립하여 실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자비사상을 실천하여 이웃을 위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자(慈)란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비(悲)란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남의 슬픔과 괴로움을 뿌리뽑아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도우며 서로가 화합하는 사회가 부처님의 이상세계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일삼고 악육강식과 부정부패가 총일한 오늘의 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화합·화평하는 평화의 낙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각종 각해 총인



육바라밀 실천 불국토 이상 실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법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우주의 가장 중심자리에 계시면서 진리 그 자체로 만중생을 평등의 인과로써 고르게 거느리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지심으로 자신의 신행을 돈독히 하면 그 맑고 고요한 마음속에 여실한 부처님의 모습이 시현되고, 법신부처님의 서원대로 이 시방정토에 그대로 정화된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무명을 제거하는 등불이며 또한 진리의 위치를 가르치는 영원한 법입니다. 진리는 시방삼세를 초월하여 모든 삼라만상의 근본을 묶는 거룩한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총명한 기쁨을 사회에 회향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여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때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곳마다 본연의 진면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취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민족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져 남북의 불교 교류 활성화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서원합니다.

동국학원 녹원 이사장



부처님 자비정신 현실속에 실천을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혀 지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이란 우주의 실상과 생명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법은 항상 큰 바다와 같이 흘러가고 있으며, 영원한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이 차별 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이, 정각의 빛도 역시 시공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인간이고 중생은 미혹하여 생사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큰 원력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데 소홀히 했음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타행을 통하여 정법의 종소리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다시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법륜종 정각 종정



모두가 한생명 공동체

부처님의 탄생은 천지여아 동근 만들어야 일체(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라는 대전리의 설과립

부처님의 탄생을 천지여아 동근 만들어야 일체(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라는 대전리의 설과립

모두가 한생명 공동체

부처님의 참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물질만능과 전도된 가치관으로서의 새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청정 법신 비로자나의 세계, 광명변조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확실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탐진치 삼독의 어두운 업연을 끊고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나서 공생공영 대화합의 세계를 다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총지종 룡정 종정



선행은 수행 밀거름

부처님 오신 날을 좀더 대아적(大我的인) 연등불사로 맞이합시다. 등불을 밝힐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한 대승적 서원을 세워봅시다. 또한 대서원과 끊임없는 대정진 불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이라도 몸소 베풀고 실천하여 봅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밀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닦고, 진정한 보살로서 실천을 제일로 하는 행자로 거듭 나도록 합시다.

관음종 홍파 종정 대행



망상없이 깨침 얻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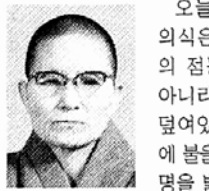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집착과 망상을 버리고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는 깨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집착과 망상을 버리고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는 깨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망상없이 깨침 얻자

생명과 우주 만유는 그대로 일체 공덕을 갖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깨달은 화신부처님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깨달음의 미래부처님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기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과학문명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선도하여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영원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보문종 혜안 종정



번뇌털면 불성 밝아

오늘의 봉축의식은 일과성의 점등행사가 아니라 번뇌에 덮여있는 불성에 불을 지피 무명을 밝히고 갈

오늘의 봉축의식은 일과성의 점등행사가 아니라 번뇌에 덮여있는 불성에 불을 지피 무명을 밝히고 갈

번뇌털면 불성 밝아

애를 고갈시키는 발심용 등불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밝히는 등불은 우리 모두가 '여래의 씨앗'이라는 가르침을 가슴깊이 질신했 받아들이고 체득하기 위한 발심의 등불이어야 하며 이웃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법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밝히는 점등의식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땅에 출현하신 일대사연애에 수순하는 길이며, 탄생계의 이념을 계승하는 참다운 불자의 길입니다.

총화종 동광 종정



등 밝혀 국민 앞날 밝게

世尊此出世 世界大光明 比如千日出 照耀大千 開(세존차출 세 법계대광 명 비여천일)

世尊此出世 世界大光明 比如千日出 照耀大千 開(세존차출 세 법계대광 명 비여천일)

등 밝혀 국민 앞날 밝게

출 조요대전개 家家戶戶 一燈燭 國民前途 有光明(가가호호 일등촉 국민 전도유광명)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매 온 천지가 큰 빛을 내어 마치 태양이 천지를 비추는 것과 같도다. 집집마다 연등을 밝혀 우리 국민의 앞날을 밝게 하리라.

원융종 일공 종정



원융 화합해 국난 극복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오신 것은 무명을 밝혀 중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오신 것은 무명을 밝혀 중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 불자들은

원융 화합해 국난 극복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과 지혜의 빛을 받아 스스로 깨우쳐 원융화합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와 지혜로써 광명을 밝혀 주셨듯이 각자의 작은 소망과 성심을 합쳐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비와 나눔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반종 해곡 종정



탐진치 씻고 자아 찾자

탐진치 씻고 자아 찾자

의 화두로서 인연이라는 고(苦)의 원인을 찾아냈으며, 고행이라는 수행 그 6년, 견성 성불하시어 일체의 중생을 위한 고뇌로써 자비라는 화두를 찾아서 그 45년 자비의 생을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셨네, 쿠시나가라에서 지 수 화 풍 으로 불생불멸의 길을 보여주셨네. 청정한 수행정진으로 탐진치 삼독을 정화하여 자아를 찾아서 내가 주인공임을 알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부처님 나주시었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우리가 부처님 나라

● 국내지원 ●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 ▶ 팩스 : (031)470-3116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4리 산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산 142-7번지 Tel : 052-244-0884 Fax :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6639,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2 Tel : 055-746-8163, 054)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동동 1-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삼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 556-1986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 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Prv.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D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mvit soi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